



동영상보드 내장 펜티엄 멀티PC 출시

- 국내처음 펜티엄75Mhz 장착... 고성능 펜티엄 시장 점화
-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면서 동시 작업 가능
- 국내 유일 OPL4 사운드 카드 채용... 고급오디오 수준 음질 제공
-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윈마당' 기본 내장
- 미국 MS社의 '윈도우즈95' 호환 테스트 통과로 국내 최고 호환성 입증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이 동영상 보드를 장착한 펜티엄·멀티미디어 PC(모델명:CPC-5320A/B/C) 3개 모델을 발표하고 시판에 들어갔다.

작년 4월 국내처음으로 펜티엄PC를 개발하여 한해동안 총1만7천여대를 판매 국내 펜티엄PC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던 대우통신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Pentium 75Mhz CPU를 채택한 제품의 실제 판매에 들어감으로써 94년에 이어 95년에는 고성능 펜티엄PC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특히 멀티미디어와 네트워크 환경의 대두에 따라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32비트 OS(Operating System)인 '윈도우즈 95'의 발표를 앞두고 이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국내 업체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MicroSoft社에 이 시스템의 테스트를 의뢰해 '윈도우즈95와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다는 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국내 제품중 '윈도우즈95'와 가장 호환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멀티미디어PC의 보급으로 가정용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주부를 비롯한 초보자들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윈마당'을 기본 탑재함으로써 사용하기 쉬운 컴퓨터 환경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컴퓨터 전반의 내용을 그림과 음성을 통해 설명해 주는 '컴선생' 명강의를 비롯 컴퓨터 사용시 어려운 문제를 질의 응답 형식으로 설명하는 '알고싶어요' '고객지원' '주의사항' '게임' 등의 총8가지 메뉴가 컴퓨터를 켜고 동시에 화면에 나타나 초보자도 원하는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대우통신이 발표한 펜티엄 멀티미디어PC '코러스'는 1천6백만 가지의 자연색과 오버레이 기능을 가진 동영상보드를 장착, 설명한 화질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버레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화상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 및 CD-ROM 드라이브 등을 최대 4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국내최초로 EIDE 방식의 윈터치 2배속과 4배속(옵선) CD-ROM 드라이브를 채용, 프로그램을 일일이 실행시키지 않고도 버튼 한개의 선택만으로 오디오 CD를 작동시킬 수 있어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존 멀티미디어PC의 사운드카드가 FM방식만 지원하는 OPL3급 음원칩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최초로 미디·PCM·FM 방식을 통합지원하는 OPL4급 음원칩을 채용하였고, 고음과 중저음을 분리하는 실효출력 40W의 투웨이시스템 스피커를 장착하여 OPL3급 사운드카드와 내장형 스피커로는 구현할 수 없는 고급오디오 수준의 음질과 출력을 자랑한다.

이밖에 음성사서함·삐삐호출·자동응답기능 등을 갖춘 1만4천4백bps급의 팩스모뎀이 기본으로 장착되었고, 한글도스6.2·한글윈도우3.1·글3.0·한이름1.0 등을 수록한 통합CD, 명인III·보이에트라 등의 윈도우즈용 소프트웨어, 국내최대인 2천1백여곡을 수록한 영상노래방CD, 노바스툼 게임CD, 민병철생활영어CD, 데이타맨·북맨·보이스맨·팩스맨·하이팩스 등 통신용 소프트웨어를 포함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제공된다. 또한 동영상보드가 기본 장착된 CPC-5320B 구입시에는 '동방불패' '최신댄스곡' 등의 비디오CD가 제공된다.

부가세 포함 소비자 가격은 각각 271만7천원(CPC-5320A)과 304만7천원(CPC-5320B), 254만1천원(CPC-5320C).